



환경문제 적극적 대응 필요해

김춘환 조선대학교 교수

이번 호에는 한국환경법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춘환교수(조선대학교)를 만나 보았다.

김춘환 교수는 1956년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를 졸업한 후 조선대학교를 거쳐,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모교인 조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 조선대학교 교수에 재직하고 있다.

재직 중에 미국워싱턴대학교 로스쿨과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로스쿨에 방문교수로서 두 차례의 유학을 다녀온 후 연구생활에 탄력을 받게 된다.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서 학업을 마친 토종 지방출신 학자이지만 그의 활동무대는 전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내에서도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역임하였고, 제재배출에도 소홀함이 없어서 현재 배출된 제자들 중에는 현직 전임교수만도 10여 명에 이르러서 전문분야의 학통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는 제19대 한국 환경법학회 회장으로서 지난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랍사트 한국총회기간 환경국제학회와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과 국제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의 연구분야도 광범위하여 한국 공법학회와 토지공법학회, 그리고 한국관세학회 등에서 부회장 직을 맡고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연구활동의 광범위함은 연구 논문에서 엿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실린 논문만도 무려 70편에 이르러서 방대하고도 심도 높은 연구영역은 아는 사람이면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한다.

교수로서 학술활동은 기본이고 지역에서의 사회봉사활동 역시 중요한 교수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그는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을 맡아 각종 결정문을 직접 작성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샌님 학자로서 자신 스스로도 평생을 공부밖에 모르고,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는 팔자소관이 아니냐고 너스레를 떤다.

넓은 이마와 환한 미소를 가진 인심 좋은 아저씨 모습에 안경너머 수줍음이 남아있는 그는 너무 겸손하여 자기자랑을 이끌어 내려는 기자의 유도질문에는 도저히 말려들지를 않는다.

기자는 김교수에게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를 가리지 않고 내리 질문을 던져놓지만 싫어하는 기색없이 질문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기자 : 사적인 문제부터 질문을 드릴까요? 먼저 현재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김교수 : 한 집에 모두 여섯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어머니, 집사람, 세 아이들로, 한 지붕 아래 3대가 살고 있습니다.

기자 : 그것 역시 요즘 보기 드문 세대이시군요. 부인께서도 대학에 재직하신다는 말이 있고, 또 법조계로 진출하려 한다는 말도 있던데...

김교수 : 전남대학교에서 강사생활을 오래해서 전임교수로 잘못 알려져 있나보네요.

금년 3월에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학생이라고 여러 곳에서 인터뷰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신문과 지방신문에 그에 관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기자 : 교수가 되기까지 가장 어려운 여정은 어떤 점들이었나요?

김교수 : 교수가 되기 전에 약 5년 정도 시간강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생계 때문에 여러 지역을 돌며 여러 대학에서 많은 과목을 강의를 해야 했고, 학기마다 새로운 과목의 강의주문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 때 여러 대학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칠 수 있어서 즐거웠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김교수 : 하루일과는 거의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약 한 시간 반정도 걸려요. 땀을 내고 샤워를 하면 기분이 산뜻해집니다.

이 시간이 내에게는 사색과 관조의 시간이 되었어요. 어쩌면 가장 자유로운 사유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 일을 약 20년간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삼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중독이 되어서 일과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기자 : 이제는 좀 공적인 부분에 대하여 여쭙 볼게요. 지방대학교수로서는 꽤나 유명한 분이므로 중앙에 알려져 있는데, 다른 교수들보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그리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은 무엇인가요?

김교수 :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업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이 꽤나 성과를 올린 모양이네요.

대학에서 25여년간 행정법과 환경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동안 강의한 내용을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행정법(1)(2), 관례행정법, 환경법 등을 교과서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실린 것이 70편쯤에 이르는데, 주로 법학분야의 학리적이거나 일반인에게는 읽히지 기 어려운 것입니다. 행정법 전 분야에 두루 걸쳐있고, 환경법분야에 20편쯤 되지요.

기자 : 특히 교수님은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환경문제는 무엇 일까요?

김교수 :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배출량이 계속 늘어나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고,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위이며 기온 상승률은 세계 평균의 2배 정도가 될 정도로 지구온난화 및 환경파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시키기 위한 거센 외교적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도래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 되는 것이 확실시되므로 이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인중재, 탄소은행 또는 그린탄소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우리 환경에 맞는 구체적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 : 전문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말씀이 자세해 지는군요. 그럼 다음으로는 교수님의 사회활동의 비중에

‘공부’ 평생 동반자로 생각해 대체에너지 개발 필요성 강조

대하여 갖고 계신 견해와 현재 교외에서 활동하시는 일인가요?

김교수 :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활동은 공부교수인 저로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연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맡아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술활동 외에는 특별히 교외활동을 하는 일은 없고, 주로 외부 강의를 나가거나 행정법학자가 필요한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이제는 학교생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요?

김교수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국제화 시대여서 그런지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학 때 영어정도는 외국인과의 사소통이 원활하도록 배워둘 필요가



◆ 김춘환 교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 교수생활에서 가장 보람으로 생각하시는 일인가요?

김교수 : 2000년 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교과서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가 쓴 책을 보내왔을 때 그 책을 보는 순간 정말로 가

구, 봉사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 교육·연구는 교수의 생명이 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도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자 : 앞으로 계획하시거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요?

김교수 : 특별하리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유감스럽게도 매우 단순합니다.

그저 학생들 잘 가르치고, 읽기 쉬운 책 쓰고, 읽을 만한 논문을 쓰는 일입니다.

기자 : 앞으로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에 대하여 조언해 주신다면?

김교수 :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민간 교육신문으로서 전국지는 교육연합신문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신문이 될 것 같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를 사회국가라고 하는데, 사회국가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중 사회적 기본권이 중시되는 것이고,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은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전문영역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승훈 기자 swan@eduyonhap.com

[인터뷰 후기] 인터뷰 하는 동안 김교수로부터 받는 느낌은 규범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재미없고悶々로운 생활일 것 같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항상 힘이 넘쳤고, 힘주어 강조하는 어투에는 남다르게 느껴지는 기가 담겨있었다. 기본에 충실함이 큰 성공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느끼게 해주었다.

김교수 : 별다른 것은 없어요. 그저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교수가 하는 일은 주로 교육, 연